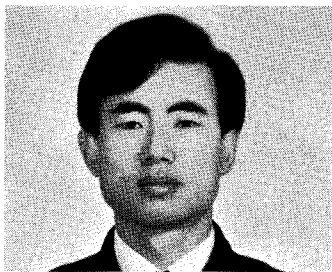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허춘회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부산지방사무소



온돌인의 장인정신을 보며

인류문화의 발전과 온돌

50만년전에 최초로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인류로 알려진 "베이징 원인(北京原人)"이 살았던 동굴속에서는 돌이나 짐승의 뼈로 만든 원시적인 도구와 함께 불을 피운 자취가 발견되었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서울 암사동 한강가에서는 구덩이처럼 땅을 파고 움막같은 지붕을 씌웠던 집터가 발견되었는데 그 움집에서는 비록 원시적이거나 땅을 판 구덩이 위에 돌을 얹고 불을 피운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우리 온돌문화는 아득한 선사시대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고 그 장구한 온돌의 역사에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농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이들은 누구나 정겨운 추억으로 기억할 것이다.

흰 눈이 수북히 쌓인 마을 뒷산에서 동네 아이들과 토끼 물이를 하다가, 혹은 개울 건너 강이나 들판의 얼어붙은 눈위에서 얼음 지치기나 팽이 치기를 하다가, 고무신에 물에 젖은 언발로 시린손을 호호 불며 방에 들어섰을때, 할머니

께서 언손을 부여잡고 아랫목에 앉히시며 깔아놓은 담요밑에 손발을 넣어 주셨을 때의 그 따뜻한 온돌장판에서 전해오던 안온함, 그 말할 수 없는 무한한 행복감.

아무리 문화가 발전되고 주거형태가 바뀌어도 우리들 한국인의 생활문화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온돌에 대한 고마움과 그 지혜로운 난방방식은 참으로 우리들의 훌륭한 전통문화의 하나로 크게 주목된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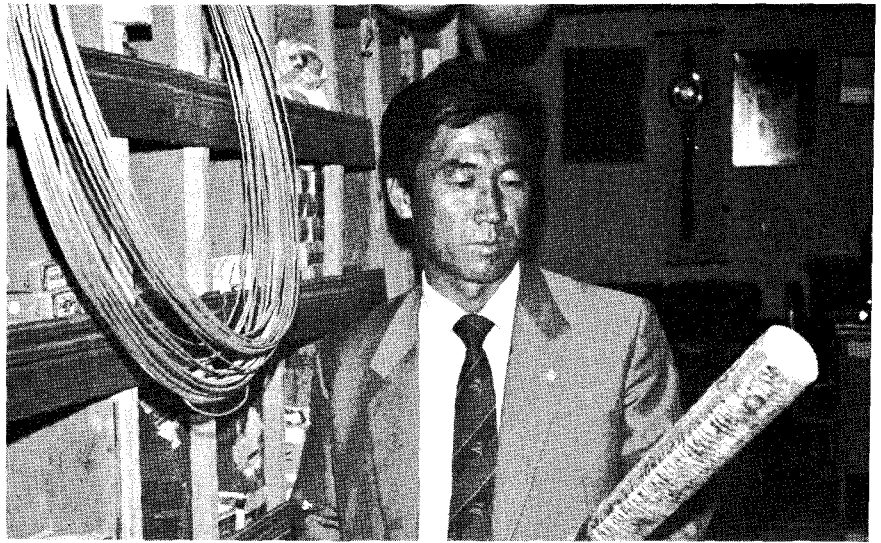
현대생활과 난방

설이나 추석명절때, 혹은 겨울휴가 여행등으로 며칠동안 집을 비운 채 나갔다가 난방이 꺼진 쌀렁한 집안에 들어섰을때의 그 어설피고 처연한 느낌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된다.

이내 불을 피우고 전기 스토브나 석유난로 따위를 작동시켜 잠시의 추위를 달래곤 하지만 방바닥으로 부터 전해오는 그 쌀렁한 냉기는 새삼 온돌난방의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게 한다.

전기 스토브나 석유난로등으로 난방하는 대류식 방식과 온돌난방식과의 차이는 난방시공의 문외한인 평범한 생활인의 경험으로도 능히 그 우열과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수년전 조그마한 중고 아파트를 사서 입주한 뒤 얼마 안된 초겨울 저녁에 갑자기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소동을 피우다가 확인해 보니 바로 윗



층의 온돌파이프 시공 잘못으로 누수가 되어 물이 새는 것으로 밝혀져 안방에 세수대야를 들여놓고 밤을 세우기도 했는가 하면, 그 후 또 한번은 우리집 온수 보일러의 고장으로 수리하는 기간 며칠동안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새삼 보일러 시공이나 온돌작업에 있어서 그 설비재료의 선정이나 시공인의 전문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온돌인의 치열한 장인정신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는 년4회에 걸쳐서 온돌기능사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험시행의 감독관리를 위하여 시험장에 나갈때 마다 느끼는 것은 온돌인들의 그 치열한 장인정신과 진지하고도 탐구적인 자세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일

러 시공이나 온돌설비가 뭐 그리 큰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일반적인 건축의 구조 및 공사에 관한 지식과 이해, 온돌및 보일러의 구조와 그 시공은 물론 실제 시공상에 있어서의 잡다한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완벽하고 숙련된 작업, 이러한 제반 지식과 기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일정수준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국가기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온돌기능사 응시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온돌인들의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기능향상에 대한 노력을 엿볼수 있게 된다.

날로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산업사회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하여 유능한 기능인력이 계속 배출됨으로써 온돌문화가 눈부시게 발전되고 이러한 온돌문화는 우리의 주거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